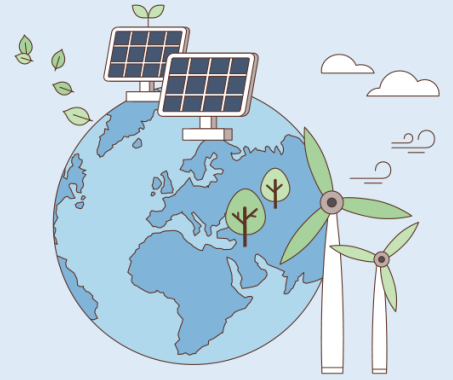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바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완화책 마련 행정명령 *뉴시스*
- 금융권 위협하는 기후리스크... "금융권 공동 대응 필요" *아시아경제*
- 지구를 지키는 ESG, 탄소저감 ICT 기술로 해결 *디지털데일리*
- 두산중공업, 유럽서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잇단 수주 *파이낸셜뉴스*
- SK케미칼, 중국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 230억원 투자 *연합뉴스*
- 굴뚝산업도 달라졌다... "환경 전문가 모셔라" *매일경제*
- EU 60년 프로젝트 '온실가스 0'...한국에 주어진 건 32년뿐 *중앙일보*
- "美, 국가별 수입품에 '탄소 수수료' 부과 검토" *파이낸셜뉴스*
- "친환경 사업 박차"...주류·담배업계도 ESG 투자 *시사오늘*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SK이노, 美포드와 6조원 합작법인 설립...2025년 전후부터 생산 *뉴시스*
- KCGI, 대림 지분 26.6% 국내 증권사에 매각 *한국경제*
- '현금부자' 고려아연, 사실상 무차입경영 *더벨*
- '파운드리' 키우는 SK하이닉스, M&A 후보는 어디? *뉴스토마토*
- '금융지주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부과'...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한겨레*
- 'CEO 얼마나 잘했냐도 ESG로 평가한다' *비즈니스위치*
- 한전, 올해 첫 '사회적 가치 위원회' 개최...종합계획 공유 *뉴시스*
- '태경농산' 키운다는 농심...'일감 몰아주기' 해결책은? *투데이코리아*
- 하나금융, 새 은행장 '복수추천' 폐지... 지주가 직접 뽑는다 *머니투데이*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롯데카드, 4.5억달러 규모 'ESG 해외 ABS' 발행 *아시아경제*
- 우리銀 ESG 우수기업 지원...대출한도 늘리고 금리 우대 *매일경제*
- 항만노동자 34명 숨졌지만...법원 실형 선고 10년간 1건 *경향신문*
- '하청업체 변경 때 노동자 집단해고 방지' 입법 추진 *연합뉴스*
- 고용도 차별...아시아나 협력사 직원 해고 직면 *SBS NEWS*
- 잘나가던 GS25, 남형 논란에 시총 직격탄...'라이벌' CU에 편의점株 1위 내줬다 *뉴스핌*
- 거리로 나선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사상 첫 파업 가능성은 *시사위크*
- '배달종사자 안전 사각지대'...라이더 산재신청 3년새 3배 급증 *아시아경제*
- 위로금 미지급·불시 조직개편... 한화생명 노사, 여전히 '네 탓' 공방 *머니S*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마켓인]김용진 "국민연금 ESG가 韓 ESG 기준 될 것" *이데일리*
- 은행, 지자체·기관과 'ESG 협업' *파이낸셜뉴스*
- 국민연금공단, ISO22301인증으로 재난 대처 능력 인정받아 *뉴스메이커*
- [ESG-공정·상생] 전문가는 어떤 성장기업 담았나 *서울와이어*
- 기후변화 대응 EDCF 사업에 2025년까지 6억달러 지원 *연합뉴스*
- [ESG가 온다] ②세계 ESG 자금시장 규모 829조...2년새 2배로 *연합뉴스*
- 대형 ESG 펀드들의 '애장품'은 알파벳 *한국경제*
-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살아나네' *매일경제*
- [SWIF 2021]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 "ESG워싱 우려 해소 방안 마련할 것" *서울와이어*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ESG 평가 체계 개선 방향

- 자본시장연구원 21.05.17

E

- 지속가능투자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최근 집계로는 2020년 말 기준 45조 유로로 보고되고 있고, 그 중 2.5조 유로는 평가 기관에 의해 부여된 ESG 등급을 추종하는 기관투자자의 자금임. 국내 ESG 등급 반영 주식형 펀드 설정 금액은 2021년 5월 6일 기준 1조 2,208억원으로 이는 1년 전에 비해 3.8배 증가한 금액
- 국제 준칙에 의하여 작성한 회계 기반한 신용등급 평가와는 다르게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ESG 평가는 방법론상의 투명성과 평가자 간 결과의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ESG를 표방하는 투자 자금의 급속한 이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의 부재는 자원 배분의 왜곡 내지는 불완전 판매 문제 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관련 당국은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 번째로 체계적 공시를 위한 신뢰성 있는 기준과 제도 마련을 들 수 있음. 이에 따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1) 기존 다섯 개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표준 이니셔티브(CDP, CDSB, GRI, IIRC, SASB)에게 기후변화 위험의 중요성과 정량 정보 측정 용이성을 근거로 환경 관련 공시 기준을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하여 2020년 말 환경 관련 기준 프로토타입을 마련했고 2) IFRS 재단의 국제 지속가능기준위원회 신설 및 글로벌 기준 제정 위원회로의 격상을 검토하고 있음
- 두 번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금융상품 관련 공개된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금융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유럽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정(SFDR)을 꼽을 수 있음
- ESG 정보와 관련된 불완전판매 문제, 그리고 ESG 평가와 지수 산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경영진 보상에 대한 ESG 요소 반영 추세

- 자본시장연구원 21.05.17

S

-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ESG 성과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ESG 요소를 경영진 보상에 반영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조사에 따르면 경영진 보상 계획에 ESG 요소 중 환경 및 사회 지표를 반영하는 기업의 비중은 2020년말 기준 18.7%로 2018년 9.8% 대비 두 배로 증가함
- ESG 성과를 경영진 보상에 반영하는 기업은 기후 협약과 환경 친화적인 경영에 주도적인 입장이었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반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임. Willis Tower Watson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유럽의 시가총액 상위 350개 기업 중 약 11%가 탄소배출량을 경영진 보상 계획과 연계하고 있는 반면, 미국 S&P500 기업 중에서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ESG 성과를 경영진 보상 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경영진이 ESG에 중점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반영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ESG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를 경영자 보상에 반영하는 것은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경영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할 유인을 제공함
- 경영진의 성과급 결정에 있어 본질적인 경영진 보상과 기업 목표와의 일치 문제 및 ESG 성과 측정의 정확성 문제에 따른 우려는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SG 투자 위험의 증가와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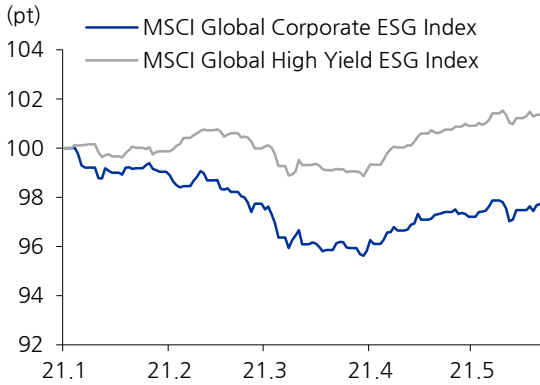
- 한국금융연구원 21.05.15

G

- ESG 투자에 대한 관심과 투자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투자자 리스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의 불투명성과 투자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위 ESG 워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ESG 워싱 또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기업, 상품 등이 실제 환경이나 ESG 요소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전략 실행 수준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의도적, 비의도적인 명칭 부여, 홍보, 마케팅 등만으로 ESG 친화적 기업 또는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함. 평가기관이 산출한 ESG 등급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은 투자자들을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 있음. 각각 상이한 영역에 대한 평가 결합 방식 및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가운데 최종적인 통합 ESG 등급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는 다양한 투자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지배구조 부문 평가는 우수하나 환경 부문에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의 통합 ESG 등급은 중간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데, 통합 등급 정보에만 기반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투자자의 경우 환경 규제의 급격한 강화 등에 따른 해당 기업의 ESG 등급 급락을 적절히 예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다만 ESG 평가 관련 규제는 그 기반이 되는 공시 기준을 확립하고 평가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정책적으로 평가 지표나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미 SEC 위원인 Hester Peirce는 계속 진화하는 ESG 요소는 복잡하며 기업 및 산업 전반에서 쉽게 비교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ESG 공시 관련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조차 자본이 특정 분야에 획일적으로 집중되고 다양성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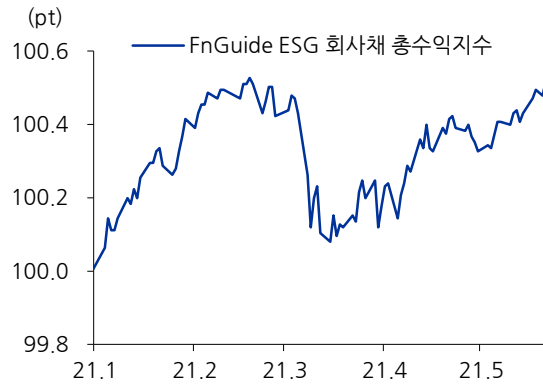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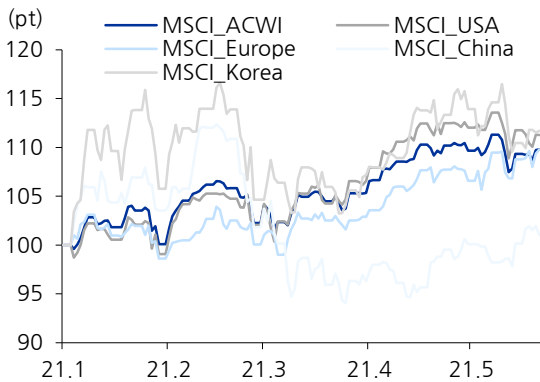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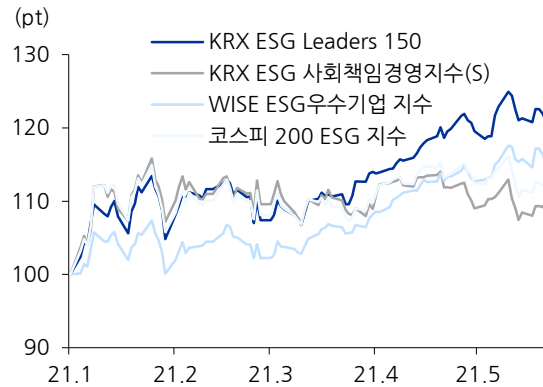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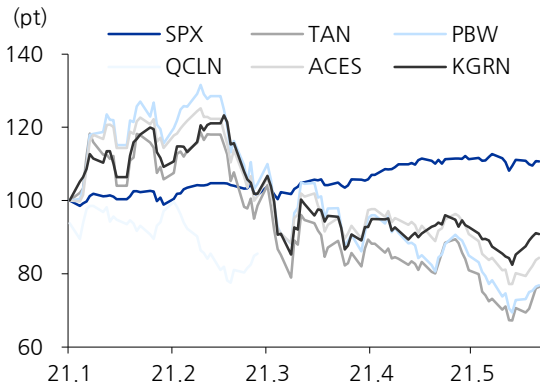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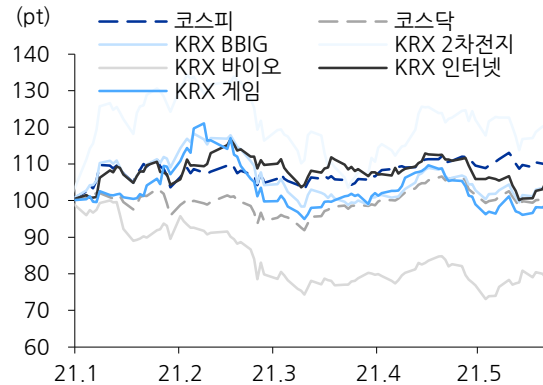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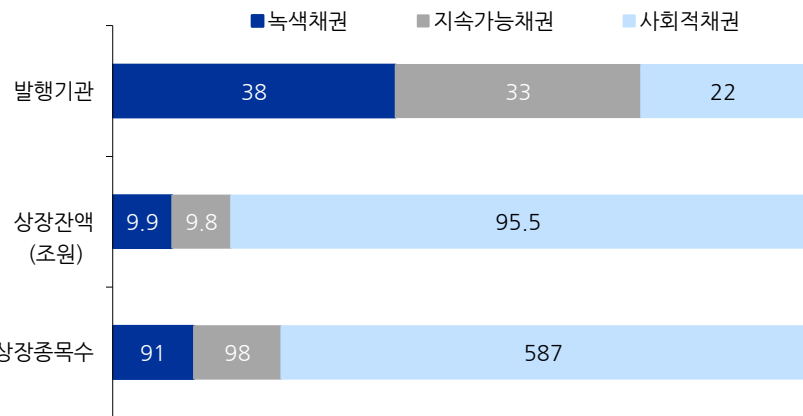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1(1-1)(사)	2021/05/21	1.06600	160,1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1(1-2)(사)	2021/05/21	1.89400	3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1(1-3)(사)	2021/05/21	2.45400	2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1(1-4)(사)	2021/05/21	2.56500	7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26(사)	2021/05/17	1.26400	120,000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3.31 기준)